

설 효도선물 ‘농작물 재해보험’ 어때요

이상기온·자연재해 급증 관심 높아져

사과·배 등 작년 전남지역 190억 지급

영암에서 3만㎡의 단감 재배를 하는 A농가는 지난해 태풍 피해로 농사를 망쳤다. 하지만 다행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A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료 12만원(가입금액 4400만원)을 내고 약 200배에 달하는 2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반면 담양에서 단감을 재배하는 B과수농가는 지난해 4월 이상기온(봄동상해)으로 꽃눈이 얼어 죽었다. 이로 인해 수확이 급감해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 농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 길이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상 기온과 자연 재해가 급증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보험 가입 1만 농가를 돌파했다.

지난 2001년 903농가, 775ha에 불과하던 농작물재해보험은 10년만인 지난해 1만781농가, 1만3367ha로 각각 11배, 16배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08년 4845농가, 3825ha에서 2009년 9451농가, 1만1125ha로 크게 늘었다.

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도 2009년 7183건, 261억원, 지난해 1만 1384건, 19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상기온과 자연재

■ 전남 농작물 재해보험 실적현황
(단위:호,백만원)

구분 (년)	가입실적			지급실적	
	농가수	가입금액	보험료	건수	보험금
2010	10,781	252,239	15,136	11,384	19,011
2009	9,451	222,085	10,086	7,183	26,091
2008	4,845	141,999	8,359	395	1,451
2007	4,492	146,780	9,796	1,624	3,971

해가 찾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한데다, 적은 보험료로 피해 보상이 가능한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가입품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보험가입도 크게 늘었다.

보험 가입 품목은 지난 2001년 사과와 배 2개 품목이었지만, 올해 새로 복분자·꽃고추·호박 등 새로 추가돼 총 2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전국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곶감·감자·참다래·콩·복숭아·포도·자두·양파 등 12개이며, 주산지 위주 시범사업 품

목은 벼(해남·나주·영암·고흥·영광), 밤(구례), 매실(광양), 고추·고구마(해남), 마늘(고흥), 딸기(담양), 오이(순천) 등이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정부가 50%, 지자체가 30% 지원하고 농가 부담은 20%다.

정부와 전남도는 올해 지난해 예산보다 20% 증가한 4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정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운영된다.

이에 따라 농협 전남본부는 사과·배·단감·곶감·감귤 등 5개 품목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조기 가입을 받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농사 짓는 부모에게 농작물은 또 다른 자식”이라며 “뜻하지 않은 재해로 농사를 망치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설 효도선물로 농작물재해보험 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이라고 권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G, B2B 디스플레이 유럽 공략

LG전자가 1일부터 오는 3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B2B(기업간 거래)용 디스플레이 전문 전시회인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11'에 참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관람객들이 LG 전자 부스에서 세계 최초 두께인 47인치 LED 멀티비전(모델명: 47VV30)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물가 상승률 4%대 급등

구제역 여파 신선식품 지수 35.5% 올라

전남도 2개월째 4%대 유지 ... 물가 비상

광주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만에 4%대로 뛰어올랐고, 전남도 2개월째 4%대를 유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물가상승률이 4%대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과 이상 기온의 여파로 농산물 등 신선식품 지수는 광주 35.5%, 전남 24.8%나 급등했다.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이 "1월중 물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5(2005년=100)로서 전년 동월대비 4.0%,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전남은 119.4(2005년=100) 전년 동월대비 4.4%, 전월대비 0.8% 상승했다.

제곱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광주120.5(전도시평권 121.4), 전남 121.4로 전월대비 각각 1.3%, 0.9% 상승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농축수산물 18.6%, 공업제품 4.7%, 서비스 1.5% 모두 상승했다. 특히 전년 동월대비 주류·담배, 통신만 하락했고, 그의 부문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역시 전년 동월대비 통신만 하락하고 그의 모든 부문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물가 상승률 4.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로도 0.9% 올라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30.2%, 전월보다는 2.6% 올랐다.

특히 배추와 파는 1월에 전년 동월보다 151.7%와 108.2%나 폭등했으며 돼지고기(11.7%), 사과(43.1%), 고등어(63.6%), 배(44.4%), 귤(38.



/연합뉴스

3%), 딸기(33.7%), 무(84.9%), 토마토(31.1%), 콩(58.0%) 등도 급등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식료품 등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 올랐고 전월에 비해서도 1.3% 올랐다.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6% 올라 2009년 10월(2.6%)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서도 0.6%가 올라 2008년 3월(1.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집트 불안’ 국제유가 뚝

두바이유 전날보다 배럴당 1.13달러 오른 94.57달러 거래

이집트 민주화 요구 시위의 여파에 따라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31일 거래된 두바이유 가격이 전일보다 배럴당 1.13달러(1.21%) 오른 94.57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08년 9월26일(배럴당 95.76달러) 이후 최고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중동 변수로 상승하면서 휘발유·석유 등의 국내 가격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 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3월 인도분 선물은 배럴당 2.85달러(3.20%) 오른 배럴당 92.19달러, 런던 석유거래소(ICE)의 북해산

브렌트유 3월 인도분 선물은 1.59달러(1.60%) 높은 101.01달러에 거래됐다. WTI는 거래일을 기준으로 이틀새 배럴당 8%가 넘는 6.55달러나 올랐고 브렌트유 역시 200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웃돌았다.

이집트 사태에 따라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올랐다.

싱가포르 시장에서 휘발유(옥탄가 92)의 지난달 31일 가격은 배럴당 104.89달러로 전날보다 1.97달러(1.91%) 올랐고 경유는 1.24달러(1.11%) 높은 112.19달러에, 등유는 1.79달러(1.60%) 오른 113.52달러에 거래됐다. 경유 가격은 2008년 9월30일(112.68달러), 등유는 같은 해 9월 29일(118.56달러) 이후 최고가다.

/연합뉴스

1월 수출 448억弗 사상최대

전년동기비 46% 증가 ... 무역흑자 29억달러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두 달 연속 사상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0% 증가한 448억88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수출은 지난해 12월 441억4500만달러다.

수입은 32.9% 상승한 419억2600만달러, 이에 따른 무역흑자는 모두 29억62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1월에 무역흑자가 발생한 것은 2007년 1월 이후 4년 만이다. 수출 분야별로는 미국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품목들이 큰 폭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선박은 드림십과 해양플랜트 수출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9%나 급증했고, 일반기계(56.6%), 자동차(50.7%), 자동차 부품(34.4%), 반도체(23.0%), 무선통신기기(9.3%), 액정디스플레이(5.8%) 등 수출도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1일부터 20일 기준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27.8% 증가했고, 아세안(65.2%), 일본(60.9%), 미국(35.6%), 중국(24.2%) 등에 대한 수출도 고르게 증가했다.

수입은 원유 등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29.1%나 상승했고, 자본재(25.6%)와 소비재(68.0%) 수입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수맥·전자파 차단 돌침대·흙침대 인기

돌침대 제조업체 수맥흙침대(대표 이경복)의 수맥 및 전자파 차단 돌침대와 흙침대(사진)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수맥이 사람에게 주는 전기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침대로, 깨끗한 산소를 제공하고 새집증후군의 공해 물질을 제거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또 친환경 원목과 황토·화강암·맥반석·옥돌·참숯가루 등 친환경재료를 사용해 건강에도 좋다. 특히 침대에 모닝콜 기능을 갖춰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모닝콜과 동시에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경제성도 뛰어나다.



한편, 친환경 돌침대 전문 제조 판매업체인 수맥흙침대는 돌침대·흙침대·옥침대·돌소파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세계발명품대회 금메달, 장영실과학문화대상, 중소기업 우수제품(GQ) 마크 인증,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료기 등록 등 각종 인증·시상과 국내외 특허 54종을 보유하고 있다. 문의 02-777-4888, 홈페이지 www.smbd.co.kr

금호, SUV용 타이어 ‘로드벤처 SAT’

美 소비자 만족도 조사 1위

금호타이어는 1월 자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용 타이어 ‘로드벤처 SAT’가 미국 최대 온라인 자동차용품 판매 사이트인 타이어랙이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천후 타이어 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전 세계 타이어 업체들의 포장 및 비포장 전천후 타이어 23개를 대상으로 승차감, 주행 안정성, 제동력, 소음 등 12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11개 항목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재구매율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SUV용과 소형트럭용으로 구

성된 로드벤처 SAT는 자갈길과 진흙길 등 비포장도로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특히 수막현상에 의한 미끄러짐이 적고 내구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 1975년 미국 시장에 첫 진출한 금호타이어는 초고성능(UHP) 타이어를 포함해 복미교체용(RE) 타이어 시장에서 빅5에 포함될 정도로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북미지역에 진출한 국내 타이어 브랜드 중 교체용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시중은행 예금금리 ‘高高’

신한 연 4.25% 최고 ... 국민·외환도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1년 만기 ‘신한월복리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연 4.25%로 지난해 초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현재 이 상품의 금리는 작년 5월12일 출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번 주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도 연 4.10%로 지난해보다 0.10%포인트 인상했다.

외환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인 ‘에스스키뱅크 예금’ 금리(분부장 우대금리)는 연 4.10%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지난

달 24일 연 3.85%에서 3.95%로 0.1%포인트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1년 만기 ‘369 정기예금’의 금리를 지난달 17일부터 연 3.90%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조만간 연 4%대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기예금 금리 상승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정한 이후 시장금리가 뛰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시장금리 움직임을 반영해 예금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작년 말 3.

38%에서 올해 1월 말 3.96%로 1개월간 0.58%포인트 급등했다. 5년 만기 국채 금리는 4.41%로 작년 말보다 0.33%포인트 올랐다.

금융위가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 상승세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84.09 (+14.36)
▲ 코스닥지수	525.41 (+4.03)
▲ 금리 (국고채 3년)	3.96%
▼ 원·달러 환율	1,116.00원 (-5.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www.kjhr.com

국제보청기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light(자외선)를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케모르게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 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